

무안군 “도심 속 공원의 낮과 밤, 예술로 풍요롭게”

공공미술 프로젝트 남악 중앙공원 작품 설치 완료 최소 3년 보존·전시... “모두가 누리는 예술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심공원을 예술작품으로 아름답게 조성하는 무안군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남악 중앙공원에 작품 설치를 완료하여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지난 8월 선정된 총 37명의 무안군 작가팀(SORO 퍼포먼스 유닛) '수변-상상이 지라는 나무'를 주제로 남악중앙공원에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심 속 생태공원을 예술향유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공원의 작품들은 무안 작가 7명이 공동 제작한 '시공의 문들'을 비롯하여 도예, 스테인레스 조각, LED 조명 등 다양한 작품 18점이 설치되어 도심의 낮과 밤을 예술로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시공의 문들'은 김두석, 임영주, 박일정, 윤숙정, 박선제, 김영양, 서재철 작가의 무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콘셉트로 조성한 문 시리즈로 분청을 제작했던 가마의 벽돌을 활용하거나, 무안 지역의 고지도를 형상화 하고, 생태적인 무안지역의 환경

을 표현한 설치 작품이다.

도예작가의 비율이 높은 무안지역에서 도예설치조형물이 외부에 전시되는 것은 처음으로 시공의 문들 외에도 정인수 작가의 작품 '연가', 박정규 작가의 '석화', 권숙희 작가의 '성장_돌꽃이 필 때', 윤귀연 작가의 'SEE-앗', 윤신의 작가의 '구름이 이끄는 생명'과 같은 도예작가의 작품들이 공원 내에 설치되어 무안 분청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고 있다.

LED 조명으로 남악중앙공원의 밤을 밝혀주는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박상화 작가의 '사유의 정원', 정은학 작가의 '빛의 열매', 김유석 작가의 'Triangular Connect'는 공원의 밤 풍경을 새롭게 바꾸었다.

공원중앙의 분수대 앞에 커다랗게 자리잡은 송일석 작가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비롯하여 김용민 작가의 'Imagine the blue', 김남술 작가의 'zero'와 같은 굵직한 조형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예술적 감성을 일깨우는 작품들이다.

그밖에도 버려진 재료를 활용하

여 만든 김문석 작가의 '강릉로봇의 꿈', 무안의 느리지를 형상화한 허은선(플로트)작가의 '느린물결', 자연의 빛을 응용한 변혜경 작가의 '빛으로 물들여', 공원 내 낮은 실개천에 불의 소중함을 부각시킨 작품인 조상옥 작가의 '물 만난 송사리'와 같은 작품들이 공원을 다채롭게 채우고 있다.

남악 중앙공원 내에 설치된 18점의 작품은 최소 3년간 보존·전시되고 이후에도 무안군에서 계속적으로 보존·전시가 가능하다. 무안군 작가팀에서 지난 1월 4일부터 개최하였던 남악복합주민센터 지역작가 특별전시는 1월 29일 종료되었지만 이를 VR 전시로 제작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누구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다.

작가팀은 작품 설치와 전시회 뿐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아트도 진행중이다. 지난 1월 초부터 지역의 '상상이 보이는 담장'이라는 주제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접수하였고, 이를 타일로 제작하여 새로운 조형물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무안 지역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활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모



박상화-사유의 정원



박일정, 윤숙정-시공의문들-일상의 문



정은학-빛의 열매

두가 누릴 수 있는 예술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보리 웃거름 주기 당부

요소 단보당(300평) 9~12kg 살포... “관리 철저해야”

영광군은 최근기상 및 보리 생육상황을 분석한 결과, 보리 생육재생기가 2월 12일로 예측된다며 웃거름 시비를 당부했다.

월동 후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를 생육재생기라고 하며, 식물체를 뽑아 연한 우유빛의 새로운 뿌리가 2mm 정도 자란 상태에서 일평균 기온이 0℃이상으로 3~4일간 지속될 때 생육재생기로 판단한다.

보리 웃거름 주기는 생육재생기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는데, 생육이 좋은 포장에는 1회만 살포하며 단보당(300평) 요소 9~12kg를 살포하면 되고, 생육이 좋지 않은 포장은 2회에 걸쳐 살포하는 것이 좋으며, 1회 살포후 20일 후에 각각 단보당 요소를 5~6kg

씩 살포하여 줄기수를 늘리고 생육을 돕아야 한다.

또한, 월동후 잡초 방제를 위해 잡초 종류에 따라 알맞은 제초제를 선택해 잡초 생육초기에 처리해야 약해피해 없이 잡초방생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맥류 생육은 양호한 편이나 월동기간중 강추위와 잦은 눈·비로 일부 배수가 불량한 포장에서는 습해가 발생되고 있다”라며 “웃거름 시용, 배수로 정비 및 보리밭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리 웃거름 과용시 도복 발생으로 수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량 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민간일자리 재취업 지원... 中企 기술나눔 매니저 등 5개 사업

목포시가 퇴직한 신중년의 민간일자리 재취업에 정경다리 역할을 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시는 올해 작년보다 국·도비 6천9백만원을 더 확보해 총 4억4천2백만

원의 예산으로 40명의 신중년 참여자와 참여기관(기업)을 모집한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퇴직한 신중년 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보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

만 미취업자이며, 행정·경영·간호·회계·보건 의료 등 해당업무 분야 관련 경력 3년 이상 및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참여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 후 7개월 가량 참여기관에서 근무한다.

해당사업은 ▲중소기업 기술나눔 매니저 ▲소상공인 경영개선 매니저 ▲법정의무교육 홍보컨설턴트 ▲그린케어 전담매니저 ▲신중년 맞춤형 관광 서비스 매니저(이상 19일까지 모집) ▲누리과정 지원 ▲학교보건 서비스지원(이상 17일까지 모집) 등 중

소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와 취약전후 아동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가 주를 이룬다.

참여자는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며 4대보험 가입과 소정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목포시는 2020년에도 총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입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50명의 참여자와 34개소의 참여기관을 지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영암군, 맥류 생육재생기 이후 현장기술지원 나서

비배관리 및 습해예방 철저

영암군은 16일까지 관내 맥류 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맥류 생육재생기

이후 비배관리 및 습해예방을 위한 현장기술지원에 나섰다. 맥류 월동 후 새 뿌리가 자란 상태에서 일평균 기온이 0℃이상 일정기간 지속될 때 생육재생

기로 판단하며 이시기를 기점으로 비료사용 및 잡초방제 시기가 결정된다.

영암군 맥류 생육재생기는 평년보다 4일 빠른 2월 6일로 추정되며 이시

기에는 보리 생육에 많은 양분이 필요하므로 생육재생기로부터 10일 이내에 10a당 요소비료 10kg을 본밭에 살포해 주어야 한다. 단, 사질토양 또는 습해 등으로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